

# '하얀 이팝꽃 가득' 전주이팝나무축제 성료

### 시, 팔복동 철길 한시 개방... 먹거리·체험·공연·전시 어우러진 상생형 축제 운영

전주시가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 일원에서 진행한 '2026 전주이팝나무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총 5일간 팔복예술공장 주변 북전주선 일원에서 펼쳐진 '2026 전주이팝나무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면서 전주를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매년 봄 이팝나무축제 기간 평소 출입이 제한된 이팝나무 철길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팔복예술공원 인근 임시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시·도의원, 경제단체 및 지역단체 대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개막식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식은 차오름 밴드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 안내 및 개최 선언, 내빈 소개, 전주시장 환영사, 축사, 개막 세레머니, 기념 촬영 순으로



전주시는 지난 1일 팔복예술공원 인근 임시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장, 시·도의원, 경제단체 및 지역단체 대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주이팝나무축제' 공식 개막식을 개최했다.

진행됐다.

이후 매직쇼와 혼성듀엣 공연이 이어졌으며, 주요 참석자들은 행사장 부스와 팔복예술공원 일원을 둘러보며 축제 현장을 함께 즐겼다.

또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마르코 사갈 개인전과 연계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팝나무 철길 산책과 전시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홍보·전시형 스마트팜, 종합안내소, 보건소, 휴식공간 등도 운영돼 축제의 편의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장 주변에 안전요원과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방문객 등산 안내와 교통관리, 현장 안전관리에 힘썼다. 또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협조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전주이팝나무축제는 지난 2024년과 지난해 약 8만 명이 방문하며 전주의 대표 봄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도 지역 특색을 살린 철길 개방과 문화 행사, 지역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축제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어린이날' 아이들 웃음소리가득

### 전주시, 기념식·놀이주간 행사 성황리 개최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이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지역 아동과 부모 등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명품대관도 시범과 케이팝(K-pop) 댄스 공연 등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 기념식에서는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범 어린이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어린이 현장 낭독과 개막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모범어린이 16명(도지사 2, 시장14)과 아동복지유공자 8명 등 총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놀이마미 △직업 체험 부스(키즈 크리에이터) △체험·홍보부스 △부대행사(마술쇼, 버블쇼, 풍선쇼) △게릴라 이벤트(명랑 운동회, 랜덤플레이 댄스) 등이 풍성하게 진행됐다.

또한, 홍보 및 체험부스에는 전주 시 인권법무과와 굿네이버스, 전북은행, 전주시 가족센터,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운영된 주요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 남기는 인생세컷 및 네컷 촬영 △아동인권 홍보 캠페인 △금융교육 및 톨렛 이벤트 △아동정서 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정신건강 척도 검사 및 식물 키트 만들기 △미래 세대 정책 제안 사진전 등이다.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볼 정소라 작가 개인전 개최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볼'은 지난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다시볼 3층 기획전시장에서 버려진 장난감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한 정소라 작가의 개인전 'Bourseaum LAB'을 진행하고 있다.

정소라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버려진 장난감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슬로모를 다한 사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과 형태를 탐구한다. 망가진 장난감 조각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내는 '조형적 언어'로 확장된다.

전시명인 '번스슴'은 아이의 철자 실수에서 비롯된 단어로, 익숙한 규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작가의 작업 태도를 상징한다.

이번 전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활용센터 3층 기획전시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막바지 점검

### 우범기 시장, 덕진공원 찾아 최종 점검... 8-12일 개최

전주시가 오는 8일 개막하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박람회의 주요 공간인 덕진공원을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덕진공원에 조성된 작가정원과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기업정원 공사 현황을 둘러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자원순환녹지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덕진공원 현장을 둘러보며 정원조성 진행 상황과 관람 동선, 시설물 안전, 경관 연출 방향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덕진공원 내 열린광장과 산책로 일대에 조성되는 정원은 총 10개소로, 이중 현재 총 6곳의 정원이 완성됐다.

구체적으로 코리아가든쇼(5개소)는 기후변화 위기·한국 전통정원'을 주제로 공모·심사를 거쳐 조성됐으며, 서울시 교류 우호정원(1개소)은 '소우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4일 박람회의 주요 공간인 덕진공원을 찾아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조용서울, 전주에서 서울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의 현양도성을 형상화한 정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전통성과 수변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상적인 공간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기업동행정원 4개소(전북현대모터스, 포스코 이앤씨, 전북은행, 대자인병원)까지 모두 완성되면 덕진공원 일대는 시민힐링과 정원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와 관련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등 전주 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그동안의 박람회에서 정원조성이 월드컵광장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올해는 덕진공원과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곳곳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전주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6회제를 맞아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최대 규모 정원산업전과 정원전시를, 정원컨퍼런스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행사로, 시는 올해 '산림박람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원 조성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이 기획하고 가꾸는 '공동체 정원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HPV 예방접종'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6월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여성에게 국한되었던 예방접종 혜택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질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출생 남성 청소년은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 접종받을 수 있다. 2014년 생이 올해 2회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어도 내년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콜센터(063-222-1000)나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063-281-6251), 덕진보건소 예방접종실(063-250-3913)로 문의하면 된다.

# 전주시, 개별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7156필지(완산구 6만8218필지, 덕진구 7만89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1%(완산구 1.80%, 덕진구 1.81%) 상승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7500원(완산구 21만7000원, 덕진구 1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아국 토지 1㎡당 680만4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73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 관공각

전라감영의 재창조

###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